

# 변화보다 '안정' 택한 SK... CEO·부회장단 대부분 유임



하이닉스·E&S 등 부회장 유임  
수펙스협의회 조대식 의장 4연임  
C&C-스퀘어 대표는 '트레이드'  
SK텔레콤, 유영상 CEO체제 유지

올해 국내 재계 2위로 올라선 SK그룹이 1일 2023년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SK그룹의 이번 인사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영환경속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그룹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K주력 계열사 CEO들과 부회장은 대부분 유임됐고 신입 투자전문가들을 선임했다. 또 신입 ESG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선임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부회장이 유임됐다. 특히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SK 수펙스협의회 조대식 의장이 4연임 확정되면서 재계 이목을 끌었다.

앞서 부회장단과 조의장은 그룹의 혁신을 이끈 주역들로 내년에도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할 리더십을 발휘할 전망이다.

또 이번 SK그룹의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장단 인사다. SK C&C와 SK스퀘어의 대표가 트레이드됐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SK스퀘어 대표로 선임됐다. 해당 공석은 윤풍영 SK스퀘어 최고투자책임자가 채웠다. 이로써 박성하 SK스퀘어 대표, 윤풍영 SK C&C 대표가 내년부터 각 계열사를 책임진다.

두 대표 모두 새롭게 자리한 대표직이 어색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표는 SK스퀘어의 기타비상무 이사를 겸임한 바 있고 윤 대표는 박 대표와 하이닉스 인수 작업에서 호흡을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박성하  
SK스퀘어 사장



윤풍영  
SK㈜ C&C 사장

맞춰본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대표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혁신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 조직화해 포트폴리오 전략 실행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과 솔루션 등 디지털 애셋 기반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대고객 서비스 및 사업 수행 품질 혁신이 목표다.

SK텔레콤은 유영상 CEO체제를 유지한다. 유 대표는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대표도 겸직한다. 이에 유 대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시너지 창출에 나설 전망이다.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사업 영역과 함께 브랜드, 기업문화 등 전방위 영역에서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CEO는 "SKT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최적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조직 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투자 전문가인 이호정 경영지원본부장을 새로운 총괄사장으로 선임하고, 미국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며 글로벌 투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이 신입 총괄 사장과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해온 최성환 사업 총괄을

사장으로 승진 인사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경영진을 대부분 유임한 가운데, 조직 개편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며 반도체 '다운턴'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새로운 임원으로 대거 불러들이며 미래 준비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SK의 에너지 계열 기업들의 사장 인사는 '카본 투 그린'에 방점을 맞춘 인사로 진행됐다. 친환경 전략 이행을 위한 사업자회사들의 별도 조직 신설이 눈에 띄긴 했지만, 인사 부문은 대부분의 수장들을 유임시키며 '조직 안정'에 집중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부회장단도 대부분 유임됐다. 중간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는 신입 사장에 전광현 SK케미칼 사장을 선임했다. 기존 안재현 SK디스커버리 사장은 SK케미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가스는 3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는데 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이동훈 SK㈜ 바이오투자센터장은 SK바이오팜 대표에 임명됐다. 투자전문회사 SK㈜에서는 이성형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사장으로 승진했다. CFO 역할을 강화해 CEO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신규 임원 10명을 선임했으며 바이오 투자센터와 그린 투자센터, 디지털 투자센터, 재무 부문 등에서 신규 임원을 배출했다.

SK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멤버사의 성장 스토리 실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멤버사 간 글로벌 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의 이번 인사가 현재와 내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 녹록치 않은 경영상황과 경기 침체 장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기업 내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유임하면서 경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K의 인사를 살펴 보면 내년에는 ESG와 투자 관련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박정호·곽노정·노종원 체제 유지

SK하이닉스, 인사 폭 최소화  
미래전략 산하 '글로벌전략 조직' 신설  
CEO 산하에 '글로벌 오퍼레이션 TF'

글로벌 반도체 위기 속, SK하이닉스는 인사 폭을 최소화하며 안정을 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부장 계열사들도 그룹내에서 힘을 키우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전망이다.

경영진은 올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박정호 부회장과 곽노정 사장, 노종원 사장 등 3인 체제. 기존 경영진에 책임을 맡겨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묘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주요 조직을 대거 개편하며 안주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글로벌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포부다.

우선 미래전략 산하에 글로벌전략 조직을 새로 신설하며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앞으로 장기화될 전망, 정세를 분석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CEO 산하에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TF를 구성하고 글로벌 생산시설과 지역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D램 개발을 주도해온 미래기술연구원 차선용 담당에 TF장 겸직을 맡겼다. 최근 D램 생산량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는 등 이슈가 이어졌던 만큼,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실트론은 경영진 유임 뿐 아니라 장용호 사장이 수펙스추진협의회 환경사업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며 그룹내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